

## 돌과 떡

「구하시오. 받을 것입니다. 찾으시오. 얻을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시오. 열릴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비록 약하지만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줄 아는데 하물며 한눈에 제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더 나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마태 7:7-11)

거의 이년만에 일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약 10여일 동안 일본의 교계 지도자들과 만나 서로 인사를 나누고 지난 날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며 지냈는데 이번 여행에서 내가 보고 들은 바를 요약하면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전 수상이 로키드사건 때문에 체포된 것과 대만이야기, 그리고 몬트리올 올림피아 대회 이야기입니다.

먼저 일본의 전 수상 타나카씨가 로키드 사건과 관련해서 일본돈 5억엔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일본 법무성 당국에 의해서 구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명의 건설업자에서부터 일국의 수상을 담당하기까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의 정상을 향해 진출을질 친 그의 일생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야말로 입지전(立志傳)을 읽는 감이 있습니다. 그가 늘

하는 말 가운데 유명한 것이 있는데 「나는 교육도 받지 못했고 재산도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결국 뛰니뛰니 해도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과 나의 힘에만 의지해야 산다는 것이다」고 말입니다.

그의 인생철학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의 힘을 추구하는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남을 무자비하게 희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돈을 긁어 모아야 했고, 돈을 모으면 자기 세력을 모으는 데 마음대로 돈을 뿌려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그의 인생관이나 정치생활도 결국에는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인생관이나 정치생활을 언급하기에 앞서 흥미로운 것은 일본 국민들의 반응입니다. 일본 정치란 것이 돈으로 유지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일반의식이 되어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민당이 2차대전 후 일본 경제를 오늘날만큼이나 구축하여서 열강대열로 발전시켰으므로 경제적으로 불평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금권에 의한 정치에 대해 일본 국민들은 준엄한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경제 사정이 아무리 안정되더라도 국민은 어디까지나 정치가들의 정치윤리와 도의심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비판을 가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경제적 안정을 키우는 데 공헌했다 하더라도 정치인들의 윤리생활은 언제든지 국민의 비판과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새삼스레 권력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돈이고 또 돈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권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양자가 서로 배어서는 생각될 수 없는 것이며, 나아가서 권력과 금력은 언젠가 한계점에 달하면 그 힘이 무력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웃 일본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 자신의 역사

적인 교환으로 삼아야겠습니다. 그것은 결코 남의 나라의 일  
 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정치 권력과 금력에 관한 이야기는 깊이  
 알 수는 없으나 오늘 우리의 사회상을 보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은 부정식품이나 불량식품을 만들어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가짜 술·가짜 식품을 만들어서 눈 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남의 건강이  
 나 생명이 독을 끼쳐도 나만 돈을 벌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  
 각, 노동자들을 며칠 동안이나 재우지 않고 약을 먹여 가면  
 서도 일을 시켜야 매상고를 올릴 수 있다는 기업가들의 정신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고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우정이나 신의·의리니 하는 것  
 도 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각박한 생각들이 우리 사회생활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라는 것이 우리 생활의 방편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목  
 적 자체가 되어지면 우상이 되고 맙니다. 이는 권력도 마찬  
 가지입니다.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인간적 존엄성  
 을 보장해 주는 것이 권력의 본래적인 수단으로서의 존재 이  
 유이지만 그것이 목적 자체가 되면 우상이 되고 맙니다. 권  
 력이나 금력이 이처럼 우상화되어지면 거기서 부패가 생겨  
 납니다. 교회가 늘 경계하고 염려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러한 것에 대해 경고와 비판을  
 가하지 못하고 어허려 이런 우상숭배를 정당화할 때 교회 역  
 시 그 부패에 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 돈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체계적으로 된 것이  
 없지만 몇 군데서 돈에 관한 언급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탈  
 란트의 비유, 과부의 동전 한 푼, 예수께서 세금 바치는 데  
 대해 하신 비유, 그리고 가롯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를 배신  
 한 얘기, 과부들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이라는 것은 재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재물이라는 무형의 말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돈입니다. 신약 성서에 보면 결코 재물이나 돈이 필요없다거나 경제생활을 무시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또 재물이 가지는 힘과 돈이 권력과 가지는 관계에 대해서도 잘 인식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그를 책잡으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그는 추상적인 신학이나 이론으로 이에 대답한 것이 아니라 데나리온 한 푼을 손에 쥐고 거기 새겨져 있는 초상과 기호가 누구의 것인가고 반문하시고 그것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데나리온 한 푼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 힘은 구체적으로 가이사의 것, 즉 이 세상의 힘이지만, 이 힘마저도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속한다는 뜻을 은연 중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데나리온 한 푼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으로 쓸 수 있지만 그 가이사의 권력은 하나님의 통치에 예속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타나까 전 수상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태도는 분명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 달에는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올림픽 대회가 있었는데 이번 올림픽 대회는 개최 초부터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거듭한 특이한 대회였습니다. 이 대회가 끝날 때까지 여러가지 에피소드가 속출했는데 그 중에 특이한 것은 일본 여자 배구 선수들 가운데 최우수 선수인 시라이(白井)라는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일본 여자 배구 선수 중에 뛰어난 실력을 보인 이 여자는 한국인으로 그가 白井이라는 일본 이름

으로 출전해서, 가장 괴로웠던 때가 한국 팀과의 대전 시였다고 합니다. 조일 신문 컬럼에서는 그의 말을 인용하면서 白井는 국기와 국가가 없는 시합이 차라리 바람직스럽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소련을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 올림픽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 선수들을 컴퓨터를 이용하며 훈련시켰는데 그야말로 선수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고 기계처럼 혹독하게 다루어서 우승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시켰으며 누구를 위해 승리를 저둔 것입니까. 올림픽 본래의 정신은 건전한 경기를 통해서 국제간의 친선을 도모하자는 것인데 애당초부터 정치적인 흥정과 외교적인 수단으로써 온갖 술수를 다하여 어떤 나라는 경기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여 그야말로 신성한 스포츠가 정치적 편견 때문에 그 본래의 정신을 말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선수는 무엇 때문에 경기를 하며 누구를 위해서 승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나 자신을 위해 싸우며 나를 위해서 승리해야 한다」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조일신문은 이렇게 서술한 뒤 계속해서 白井가 일본에 귀국하면 일본 국민들에게 어떤 경고의 말을 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현대는 분명히 가치관의 전도를 의식하는 시대입니다. 타나라처럼 모든 금권이나 정치 권력을 자신의 힘만 믿고서 행사한다는 정치가들의 가치관, 모든 경기의 승리도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 쟁취해야 한다는 말은 얼핏 듣기에는 인간의 자기완성이나 자기발전을 위한 표현인 것 같으나, 결국 자기가 모든 일의 척도가 된다는 가치관의 표현밖에는 안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교훈하시기를「구하라. 주어질 것이다. 찾아라. 찾아질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하고 생활하는 밑바닥에는 무언

가 구하는 태도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직업을 갖거나, 공부를 하거나, 친구를 사귀거나, 교회에 나가거나 무엇인가 바라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고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한 마디로 해서 구원을 받겠다는 기대와 요구일 것입니다.

병자는 치유를 원하고 가난한 사람은 생활의 최소한의 안정을 회구하며 젊은이는 삶의 보람을 찾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밝은 빛의 생활을 갈구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대되는 삶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추구하는 것일까? 타나카처럼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의 구축을 추구하는 것인가? 어느 올림픽 선수처럼 자신을 위해 승리를 거두고자 함인가?

이것들은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떡 대신 돌을 달라는 태도요, 생선 대신에 뱀을 달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돌을 떡이라 우기고 뱀을 생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짜를 진짜라고 가장하고 진짜를 가짜라고 우기는 가치관을 이들은 주장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한 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가치 판단의 싸움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가치관은 무엇인가? 누가 복음 12장 13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 이것을 설명하십니다.

「군중 속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선생님, 제 형에게 말씀하셔서 저희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저와 나누어 가지게 해주십시오>하고 청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누가 나를 당신들의 재판관이나 재산분배자로 세웠단 말이요?>하고 대답하신 다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갖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사람이 제 아무리 부유하다 하더라도 그의 재산이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어서 예

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 한 사람이 있었읍니다. 그는 밭에서 너무 많은 수확이 나서, 내 수확물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혼자 말하고는 옳지! 좋은 수가 있다. 내 창고를 헐고 더 큰 것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산을 넣어두자.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리라. 영혼아, 많은 재산을 쌓아 두었으니 너는 이제 몇 년 동안 걱정 없을 것이다. 그러니 실컷 쉬고 먹고 마시며 즐겨라> 하였읍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이 미련한 자야, 바로 오늘밤 네 영혼이 네게서 떠나가리라. 그러니 네가 쌓아둔 것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맺으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모으면서도 하느님을 위해서는 인색한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다.>

이것이 재물에 대한 기독교의 올바른 가치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올바르게 떡을 달라 하고 생선을 달라는 요구의 기본태도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의 유지만을 위해서 재산을 모으면서도 하느님의 일을 위해서는 그가 사랑하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색한 사람이 바로 떡 대신 돌을 생선 대신에 뱀을 찾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12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희망을 이미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또 이미 완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는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달음질할 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사로잡힌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이미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놓인 것만 바라보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뿐입니다. 그리스도 에수를 통해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나의 목표이며 내가 바라는 상이 또한 그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숙하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묘사한 것입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경주에서 승리하겠다는 올림픽 선수의 이야기와는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생존 경쟁 속에서 달음질치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또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조국을 위해서 또는 나의 명예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족할까요? 그것이 전부일까요? 하느님의 부르심, 명령 그리고 하늘의 영광과 그 상 때문에 경쟁장에서 달음질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요 그 가치관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께서 계속하신 얘기는 이러합니다.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또 몸에는 무엇을 걸칠까 하고 걱정하지 마시오. 목숨이 음식보다 더 귀하고 몸이 옷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까? 저 까마귀들을 보시오. 그것들은 씨도 뿌리지 않고 거두어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곳간도 창고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을 먹여 주십니다. 여러분은 저 날짐승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한 시간인들 더 늘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여러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데 왜 다른 일들까지 걱정하는 것입니까? 저 꽃들을 보시오. 그것들은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결코 이 꽃들의 하나만큼 화려하게 입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게 믿음이 약합니까? 오늘 피었다가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하물며 여러분이야 얼마나 더 잘 입혀주시겠습니까?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염려하며 애쓰지 마시오. 이런 것들



은 이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먼저 하느님의 나라를 찾으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덧붙여 받게 될 것입니다」(누가 12 : 22-31)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생활, 그의 의를 추구하는 생활이 진정으로 돌 대신에 떡을, 밤 대신에 생선을 회구하는 생활입니다. 이것이 오늘과 같은 금전만능주의 경제성장 제일주의가 가득차서 온갖 사회적인 병리나 부패를 자아내는 우리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생활을 통해서 증거해야 할 간증이며 증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